

‘태권시티 무주’ 저력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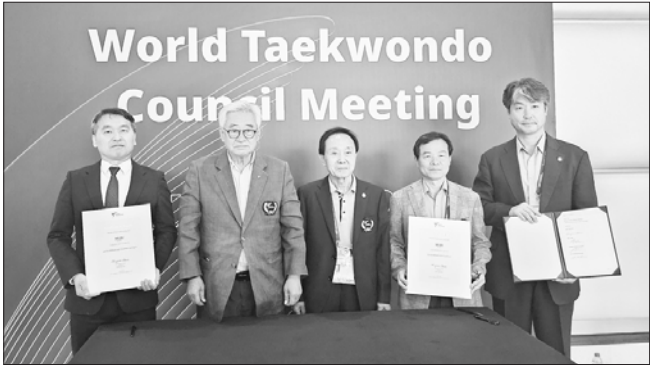
군, 2026 세계태권도 그랑프리·2027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개최지 확정

무주군(군수 황인홍)이 ‘2026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2027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개최 도시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오는 7월(11.~13. 20개국 6백여명 참가) 개최 예정인 ‘2025 세계태권도 다이아몬드게임’과 8월(29.~31. 60개국 2천여명 참가)에 열리는 ‘2025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를 잇는 대회로, 세계태권도연맹 주최 국제대회의 무주 개최를 정례화하며 태권도 성지 무주를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무주군은 이번 대회 개최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물론, 무주를 태권도 성지로 인식시키며 얻는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 관광객 유입, 추가 대회 및 훈련 유치 등 간접 효과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9일 ‘2025 세계 카트 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에서 직접 대회 유치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던 최정일 무주군 부군수는 “무주가 태권도 전용 경기장을 갖춘 태권도원을 기반으로 매년 다수의 세계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태권도 성지라는 점을 강조했다”라며 “모두가 공감해 주신 만큼 태권도 종주국의 자존심, 태권시티 무주가 가진 역량과 자연특별시 무주의 아름다움과



무주군이 ‘2026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2027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개최 도시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곳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2026. 2027년 대회를 완벽하게 치러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예정된 세계태권도 다이아몬드게임과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역시 성공적으로 개최해 다시 한번 무주에 기회를 준 세계 태권도인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군은 개최 도시 발표 직후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조정원),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양진방),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과 개최 도시 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회 개최지를 무주군으로 한다는 내용과 함께 조직위원회 구성, 대회 운영 방식, 대회 절차 및 기관별 역할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무주군과 태권도진흥재단이 공동 조직위원회를 맡는다. 또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예산확보 및 안전관리 등을 지원하게 된다.

무주군에서 개최될 2026-2027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대회는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 무주군과 태권도진흥재단, 대한태권도협회가 공동 주관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안성면 강풍 피해 농가 방문

무주군은 지난 9일 발생했던 강풍으로 피해를 본 안성면 축전리와 공성리 일대 농가를 돌며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이날 안성면 지역에는 최대 순간 풍속 30.8m/s 규모(15.7~30.8)의 강풍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9일 기준, 68농가 26.53ha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는 단동 하우스 붕괴, 인삼 재배 시설의 차광막 파손 및 지상부 손해,



축사 파손, 고추와 수박 육포 등 주요 농작물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

‘장수 계북면민의 장’ 공익장 부문 수상자 선정

장수군 계북면은 제76회 계북면민의 날을 앞두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 ‘계북면민의 장’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면민의 장 공익장 부문 수상자는 하정식씨로, 계북면 시설농업의 선구자로서 토마토 재배의 가능성을 지역에 처음 도입하고 이를 발전시켜 농업발

전과 농가소득에 기여한 인물이다. 현재는 계북면 토마토 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농가 간의 정보 교류와 결속을 위한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연구회 조직의 운영을 도맡아 왔으며 직접 쌓은 재배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누는 멘토로서 고품질 토마토 생산 교육에도 앞



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브랜드평판 도내 2위

전국 기초자치단체 순위… 행정 혁신·맞춤형 정책 등 인정 받아

장수군이 최근 기초자치단체 브랜드평판 순위에서 괄목할 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도내 2위에 해당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브랜드평판 지수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매달 발표하는 지표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브랜드에 대한 공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등을 종합 분석해 산출된다.

장수군은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 장수’를 목표로 전 분야에서 전력질주하며 3월 80위, 4월에는 61위까지 순위가 상승해 전국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4위, 도내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같은 반등은 일회성 성과가 아닌, 행정 혁신과 지역 맞춤형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군은 최근 몇 년간 각종 공모사업 선정, 홍보 등 적극행정을 펼치며 변화에 속도를 더해왔다.

장수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고, 2024년에는 군 단위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더불어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도 전국 군 단위 10위에 오르며 2년 연속 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최훈식 장수군수

또한 군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전북 특별자치도가 실시한 지방소멸대응 집행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장수트레일레이스’, ‘장수 만남의 광장’, ‘농군사관학교’와 같은 지역 맞춤형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유입과 지역 활력을 끌어내며 장수만의 독특한 매력을 널리 알리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성과는 군민과의 소통을 최우선하는 장수군 군정 방향이 그동안 노력해온 적극행정과 함께 추진된 결과인 것 같다”며 “앞으로도 장수군 브랜드 가치를 높여 군민들의 자긍심 제고는 물론 ‘지속 가능한 장수’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대중교통 K-패스 사업 시행

정기 이용 시 교통비 20~53.3% 할인·지원

진안군은 12일 정부의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인 ‘K-패스’에 참여하며 군민 대상 교통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K-패스는 정부가 2024년 5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 대중교통비 지원제도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요금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진안군은 지난 연말부터 전북도와 협의해 국비를 확보한 뒤 준비 절차를 거쳐, 현재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그동안 진안군은 고�령중 중심의 교통복지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청년층과 다자녀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교통비 부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지원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군은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K-패스 참여를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 19세 이상 군민이다. 해당 카

드는 주요 카드사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상품교통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만 혜택이 적용된다.

환급이 적용되는 교통수단은 전국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도시철도(지하철), 광역철도, 수요응답형 교통수단(행복 콜버스) 등이다.

이용자에게는 소득 수준이나 가구 유형에 따라 건별 최소 20%(일반층)에서 최대 53.3%(저소득층)까지 교통비가 환급되며,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할 수 있다. 적립금은 카드 결제일에 자동 할인되거나 현금으로 환급된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K-패스 도입을 통해 청년,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군민들께서는 K-패스 카드를 신청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라고, 대중교통 이용률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 마늘 재배 전 과정 스마트기계화 시범 추진

진안군은 마늘 재배의 전 과정을 기계화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품질 마늘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2025 원예작물 스마트기계화 신기술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농촌진흥청 국비 지원사업으로 총 3억2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파종부터 수확, 저장까지 마늘 재배 전 과정을 일괄 기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스마트기계화 기술을 도입하면 기존 재배 방식 대비 작업시간은 최대 80%, 작업비는 최대 60%까지 절감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군은 마늘 파종기, 줄기 절단기, 수확기, 산별기, 폭분리기, 건조기 등 전 공정에 걸쳐 필수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진안군은 겨울철 소득작목으로 마늘을 육성하기 위해 마늘 종구와 농자재를 보급, 10여 ha의 재배면적을 조성한 바 있으며, 올해는 이를 20여 ha로 확대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상반기 공직자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진안군은 지난 9일 오후 군청 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공직자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한용만 청렴교육 전문 강사를 초청해, 공직자로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풀이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스마트폰 오픈채팅을 활용한 참여형 청렴퀴즈를 함께 진행해 교육의 몰입도와 흥미를 더했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실질적인 청렴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

진안군은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청렴문화가 조직 전반에 자연스럽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오는 6월에는 직원 참여형 청렴 프로그램인 ‘스마트 청렴 골든벨’을 운영할 예정이며, 다양한 방식의 청렴 시책을 통해 전 직원의 청렴의식 함양에 힘을 보탬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펜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